

제 ①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작은 개미가 과자를 먹는다.

- ① 작은 ② 개미가
③ 과자를 ④ 먹는다

2. 밑줄 친 단어 중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 ① 하늘이 매우 푸르다.
② 강아지가 빨리 달린다.
③ 저 산에는 나무가 많다.
④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이다.

3.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말은?

- 어느 한 시기에 집단을 초월하여 널리 쓰인다.
- 당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비판 의식도 담긴다.
- ‘공주병, 몸짱’이라는 말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풍조를 반영한다.
-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일부는 남아서 우리 언어생활에 자리 잡기도 한다.

- ① 비속어 ② 외래어
③ 유행어 ④ 전문어

4. 다음 글과 관계있는 언어의 특성은?

“누가 개를 개라고 했느냐고?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너와 나와 이 반에 있는 아이들과 이 학교와 이 마을과 이 주와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 앤드루 클레먼츠, 「프린들 주세요」 -

- ① 언어의 법칙성 ② 언어의 사회성
③ 언어의 역사성 ④ 언어의 창조성

5. 다음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 서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

- ① 국화 ② 따님
③ 부엌 ④ 훈련

6. ㉠~㉣ 중 글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은?

물은 여러 가지로 이용된다. ㉠ 물은 요리, 목욕, 빨래 등 일상생활의 용수로 쓰인다. ㉡ 일상생활 하수는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 저수지에 가둬 두었던 물은 농사를 짓는 데 이용된다. ㉣ 그리고 물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힘으로 전기를 일으켜 우리 생활에 이용되기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7. 다음 토론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학생1: 저는 청소년들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연예인을 꿈꾼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의식을 대중 매체에서 부추기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별, 지역별 장기 자랑이나 노래자랑처럼 한바탕 웃고 즐기는 형식이 아니라, 헛된 꿈을 불러일으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2: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저는 어린 가수들을 육성하여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언젠가 세계를 주름잡는 가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가수를 육성하는 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① 청소년들의 경제 활동은 바람직한가?
② 청소년들의 매체 사용 규제는 필요한가?
③ 청소년들의 연예계 진출은 바람직한가?
④ 청소년들의 오락 중심 축제 문화는 필요한가?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림다

말을 할가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㉑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西山)에는 해 진다고
지저칩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김소월, 「가는 길」 -

(나) 비 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 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매어 주던
하얀 손가락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본 듯 힘줄만이 서노라.

- 김상옥, 「봉선화」 -

8.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된 정서는?

- ① 고마움 ② 그리움
③ 두려움 ④ 즐거움

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 형식이 정해져 있다.
- ② (가) - 후각적 심상이 잘 드러난다.
- ③ (나) - 3음보의 율격이 잘 나타난다.
- ④ (나) - ‘봉선화’는 회상의 매개체이다.

10. ㉠과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은?

- ①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 ②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 ③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 ④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게 문을 닫고 주인택에서 날라 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남이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 같은 시간이었다. 책을 펴 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 보고,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수남이는 그게 되지를 않았다. 책을 집어던졌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은 또 뭐가. 자카용까지 있는 처지에 나 같은 어린아이에게 오천 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심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 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의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네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라고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던 말인가.

그리고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라
말인가.

수남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 박완서, 『자전거 도둑』 -

(나) “소인(小人)이 마침 달빛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인 줄 아옵니다. 그러나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공은 그 말의 뜻을 짐작은 했지만 일부러 책망하며 말하였다.
“너 그게 무슨 말이냐?” / 길동이 절하고 말씀드리기를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이 대감의 정기(精氣)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또 낳아서 길러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적삼을 적셨다.

공이 이 말을 다 듣고 비록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 마음을 위로하면 방자해질까 염려되어 크게 꾸짖어 말했다. “재상 집안에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네가 어찌 이다지도 방자하냐? 앞으로 또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게 하겠다.”

- 허균, 「홍길동전」 -

11.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허구적인 이야기이다.
-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일인칭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④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12. (가)에서 수남의 내적 갈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어려울까.
- ② 내가 오늘 한 짓은 도둑질이었을까.
- ③ 나는 자가용 신사에게 오천 원을 쥐야 했을까.
- ④ 내가 자가용 신사를 골려 준 일은 잘 한 일이었을까.

13.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았다.
- ② 당시에는 신분 차별이 없었다.
- ③ 서자는 호부 호형하지 못했다.
- ④ 양반가의 자제는 무례하고 건방졌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우: (㉠ 춨을 내던지고, 민들레꽃을 꺾어 든다.) 이 꽃을 보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 형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이 그리워…….

형: 벽 너머 저 쪽에도 민들레꽃이 피어 있겠지…….

아우: 형님이 보고 싶어!

형: 동생 얼굴이 보고 싶구나!

형과 아우, 그들 사이를 가로막은 벽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비가 그치면서 ㉡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비친다.

형: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저 벽 너머로 전하지?

아우: 비가 그치고 산들바람이 부는군.

형: 저 ㉢ 벽을 자유롭게 넘어갈 수만 있다면……. 가만 있어 봐. 민들레꽃은 씨를 뱉으면 어떻게 되지?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날아가잖아?

아우: 햇빛이 비치니까 샛노란 민들레꽃이 더 예쁘게 보여.

형: 이 꽃을 꺾어서 벽 너머로 던져 주어야지. 동생이 이 ㉣ 민들레꽃을 보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아우: 형님에게 이 꽃을 드리겠어. 벽 너머의 형님이 이 꽃을 받으면, 동생인 나를 생각하겠지.

- 중략 -

무대 조명, 서서히 꺼진다. 다만, 무대 뒤쪽의 들판 풍경을 그린 절개그림만이 환하게 밝다. 막이 내린다.

- 이강백, 「들판에서」 -

(나) 문학 작품 읽기에서는 작품의 기본 내용이나 줄거리 파악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학 작품에서 글쓴이는 ‘돌려 말하기’와 ‘생략’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므로 읽는 이는 글쓴이가 사용하는 ‘돌려 말하기’를 먼저 이해하고, 글쓴이가 진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깊은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학 작품에 대한 ㉤ ‘깊고 넓은 이해’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제 파악’이나 ‘생활에의 적용’은 문학 작품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의 한 모습이다.

- 「문학 작품의 감상」 -

14. (가)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과 장으로 구성된다.
- ②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한다.
- ④ 대사와 지시문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15. (가)에서 ‘형제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소재는?

- ① ㉠ ② ㉡ ③ ㉢ ④ ㉣

16. (가)를 ㉤의 방법으로 감상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작가의 창작 의도를 생각해 본다.
- ㄴ. 뒷부분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본다.
- ㄷ.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요약해 본다.
- ㄹ. 작품의 내용을 사회 현실과 관련지어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음성 언어는 소리의 속성 때문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대면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말하는 이는 듣는 이를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손짓이나 억양, 몸짓, 표정, 어조 등 부수적인 표현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문자 언어는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 문자 언어는 사전에 계획이 가능하며, 다 적은 후에도 계속 수정이 가능하다. 또, 음성 언어를 사용할 때보다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 김용석,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

(나) 표준어도 여러 방언 중에서 대표로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방언이 없으면 표준어의 제정이 무의미하다. 예를 들면, ‘㉦’은 ‘무수, 무시, 무우, 무’와 같은 방언 중에서 표준어 규정에 따라서 표준어가 된 것이다.

- 성낙수, 「표준어와 방언」 -

17.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실제 겪은 경험을 소개한다.
- ② 전해 오는 이야기를 서술한다.
- ③ 의견에 대한 반론을 주장한다.
- ④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18.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자 언어’의 특성은?

- ① 소리의 속성 때문에 대면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 ② 억양, 몸짓 등 부수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 ③ 음성 언어보다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
- ④ 사전 계획을 할 수 있고, 적은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

19.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무 ② 무수 ③ 무시 ④ 무우

20. 다음에서 건의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정상화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학교 앞에서 등굣길에 차와 부딪힐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시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학교 근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정문 앞 인도가 안 그래도 좁은데 차들이 인도까지 올라와 있으니 학생들은 자연히 위험한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봉과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친구 학교 앞에 가 보니 예쁜 안전봉과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시장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년 ○월 ○일
○○중학교 정상화 올림

- ① 교통사고 피해 보상 ② 아침 등교 시각 변경
③ 친구 학교 방문 요청 ④ 학교 앞 교통 문제 해결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난한 제3세계에서는 곡식이 모자라 어린이를 비롯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 가는데,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물성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여 심장병, 뇌졸중, 암과 같은 병으로 죽어 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두 번째로 흔한 질병인 대장암은 육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고기 소비와 심장 질환 및 암 발생이 서로 관련이 깊다고 한다. 쇠고기 문화권에서의 심장병 발생률이 채식 문화권에서의 발생률보다 무려 50배나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 미국인들과 유럽 인들은 말 그대로 ‘먹어서 죽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사례를 읽으면서 내가 두려움을 느낀 것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리의 전통적인 식생활 습관을 버리고 서양식 식생활 습관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마다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먹어서 죽는 것은 미국인과 유럽 인들만이 아니다. 우리도 먹어서, 너무 기름지게 먹어서 죽을 수 있다.

- 법정, 「먹어서 죽는다」-

21.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는?

- ① 긍정적 ② 비판적 ③ 수동적 ④ 예찬적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난한 제3세계에서는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
② 미국에서 대장암은 육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③ 심장 질환과 암 발생은 고기 소비와 관련이 깊다.
④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식 식생활 습관을 모방하고 있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문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가치의 편에서 봐야 하며,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이 조건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준칙을 강조하는 것은 기자들의 기사 작성 기술이 ㉠ 미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보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 유리하도록 기사가 보도되게 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으므로 진실 보도는 일반적으로 ㉢ 수난의 길을 걷게 마련이다. 양심적이고자 하는 언론인이 때로 형극¹⁾의 길과 고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문은 스스로 자신들의 임무가 ‘사실 보도’라고 말한다.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신문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 왜곡하려는 권력과 이익 집단, 그 구속과 억압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송건호, 「신문과 진실」-

1) 형극(荊棘): 나무의 온갖 가지. 고난이나 장애 따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23.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글의 내용을 상상하며 읽는다.
② 글쓴이의 개성을 파악하며 읽는다.
③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는다.
④ 글에 나타난 운율을 파악하며 읽는다.

24. 윗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 ① 진실 보도를 막는 외부 세력이 있다.
② 진실 보도는 일반적으로 수난의 길을 걷는다.
③ 신문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④ 기자는 전체보다 부분을 보고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25. ㉠~㉣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미숙: 일에 익숙하지 못함.
② ㉡ 유리: 이익이 있음. 이로움.
③ ㉢ 수난: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함.
④ ㉣ 왜곡: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함.

※ 확인사항

답을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하였는가?